

# 지역 전수교육관의 문화융합을 위한 공간 개선 연구

이상희<sup>1\*</sup>, 전철수<sup>2</sup>

<sup>1</sup>(사)우리문화유산연구원, <sup>2</sup>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 A Study of Improve Space for Culture Convergence of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

Sang-Hee Lee<sup>1\*</sup>, Chil-Soo Jeon<sup>2</sup>

<sup>1</sup>Woori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sup>2</sup>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요약** 본 연구는 전수교육관의 대형화와 복합화 추세에 있어, 교육 외에도 방문객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복합화의 방법,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로서 공공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중소도시의 경우 무형문화재전수시설은 전반적으로 복합화와 공공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미비한 상태여서, 전수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수교육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도권 및 광역권 등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3곳의 전수교육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사용자 관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립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전수교육관이 본래의 기능과 더불어 공공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주제어** : 전수교육관, 무형문화재, 공공성, 복합문화공간, 문화향유, 문화융합

**Abstract**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differentiated programs for visitors as well as those for teaching, ways on how to make these halls a culture complex that can support diverse cultural activities for citizens, and strategies to increase their utilization for the public as an facility open to the community, given the trend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s are getting bigger and complex.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s of it is need to make improvements to the facility for their activ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as a collected information on their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to find ways for their activation from a user perspective by visiting thre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s except Seoul and large cities of metropolitan areas. We expect that findings from the study will provide a basis to set directions to mak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s a culture complex facility.

• **Key Words**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for the public; culture complex; Culture enjoyment, Cultural fusion

\*Corresponding Author : 이상희(442132218@hanmail.net)

Received October 4, 2017

Accepted November 20, 2017

Revised November 10, 2017

Published November 28 2017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문화요소 중에는 연극, 무용, 음악, 공예 등의 기술처럼 구체적인 형체가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들은 과거 지역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주민들에게 전승되어 왔으나,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도시화, 서구화로 새로운 생활방식을 받아들여 주민 생활 전반에 변화와 함께 무형문화재도 그 틀이 변형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전승 환경이 줄어들고 있다. 전승 입지가 좁아지는 무형문화재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이며, 이러한 문화재 전승을 위한 교육과 체험의 장이 무형문화재전수관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수교육관의 건립과 운영 방향을 지자체로 인하여 지역민들의 문화향유와 같은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무형문화재의 중심시설과 함께 다원적 기능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전수교육관기반시설로 건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수교육관은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전수교육관에 대한 인식부족과 교육 및 시연 위주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특정한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문화소비 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관리에 있어 재정적 문제와 지역에 차별적 프로그램의 부재,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장소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지자체가 정착되고 여가문화와 관련한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지역민들을 위한 공공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의 중심공간인 전수교육관의 활용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는 공간으로 개선방안 마련과 운영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재 전국에 153개 전수교육관 중 가장 많은 전수교육관이 건립되어진 경남지역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전수교육관 중 차별성을 고려하여 3곳의 전수교육관을 선정하고, 이들 도시의 전수교육관에 대한 건립 및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전수교육관에 대한 명칭이 실제 전수교육관, 전수관, 예술회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개념을 총괄하여 '전수교육관'이란 용어로 사용하였다.

지방 중소도시에 건립된 전수교육관의 현황파악을 위한 우선 문헌고찰과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문헌조사에서는 전수교육관에 대한 개념과 기능 등 이론적 상황을 파악하고, 전수교육관에 대한 현장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 전수교육관의 공간구성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의 20개 대상 전수교육관에 대한 예비조사와 이중 유형별로 3개 교육관을 조사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수교육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입지특성과 시설현황과 공간 활용도, 유희공간 및 콘텐츠 활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고 전수교육관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으로 구성하였다.

## 2. 무형문화재 정책의 고찰

### 2.1 무형문화재 정책의 개요

전통문화요소 중에는 연극, 무용, 음악, 공예 등의 기술처럼 구체적인 형체가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라 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재가 한 시대의 문화적인 소산물로 전승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승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고 있다. 전승의 입지가 좁아지는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이다.

무형문화재 제도가 전통문화 전승보존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유형문화재와 달리 무형문화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소멸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인 보호가 전통문화를 지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이다.

### 2.2 무형문화재 정책

#### 2.2.1 무형문화재 보호 정책 도입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세 번의 전부 개정(1982, 2007, 2010년)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5번 전부 개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은 1964년 제정된 이후 7번 전부 개정되었다. 이 법령에서는 연극, 음악, 공예기술, 민속 등을 무형문화재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보존을 명시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의 2에서 무형문화의 정의를 보면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라고 하였고, 이것을 무형문화재라 한다고 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은 글자 그대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역사상의 가치의 중요성이 크면서도 ‘예술상의 가치’에 비중을 둔 것이 무형문화재 정책의 특징이다.

무형문화재 정책의 큰 변화는 1970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에서 보유자 추가 인정이다. 즉, 한 종목에서 복수의 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은 지정·인정과 해체에 관한 것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해체에 관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지정에 관한 조항이 들어갔다(제50조). 광역지방자체가 독자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무형문화재는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무형문화재로 이원화 하였다[1,2].

### 2.2.2 무형문화재 보호정책 정착 시기

1980년대에 들어서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198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전부 개정된다.(1982.12.31. 법률 3644호, 시행 1983. 7.1) 이 법은 문화재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재 지정 및 해체에 관한 조항과 중요무형문화재보호·육성에서 전교육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외에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에 관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시행령(1983. 8. 3전부개정)에서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전수교육 보조자로 보유자후보·전수교육조교를 둘 수 있고, 보유자의 추천으로 전수장학생을 두는 제도를 만들었다. 또 시행규칙(1983.9.19. 전부개정)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인정기준으로 보유자 이외에 보유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개정된 법은 무형문화재 정책이 기초가 거의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큰 변화는 보유자 중심이던 무형문화재 정책이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 장학생 등으로 전승체계를 갖추어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999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의에 기준에 예능과 공예 중심으로 ‘예술적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덧붙여 무형문화재는 ‘학술적 가치’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은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은 보존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조의 2).

### 2.2.3 무형문화재 보호 정책 변화 시기.

2000년은 문화재 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1999년 5월)된다. 문화재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1년에는 명예보유자 제도가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고(제5조 2항), 이들에게 특별지연금 줄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5항). 2010년 문화재보호법이 3번째로 전부 개정 된다(법률 제1000호, 2010. 2.2제정, 2011. 2. 5일시행). 이외에 문화재의 정보화 추진,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제 19조), 정기조사 등에 관한 내용도 무형문화재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2011년 일부개정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제17조의2)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 일부개정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단체종목인 경우 보유단체로 보존회만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1,3].

## 3. 전수교육관 기능 및 현황

### 3.1 전수교육관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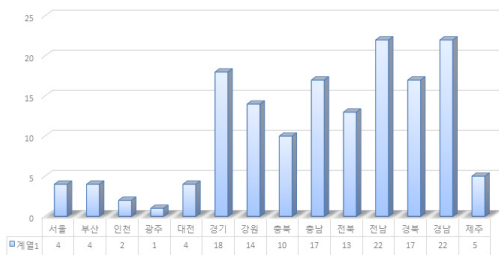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전수교육관은 문화재의 전승과 교육 목적 이외에도 국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질적 삶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 및 활동을 수용하고 무형문화재의 경험과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전수교육관은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관(官)에 의해 건립된 문화시설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 문화시설이다. 그러나 향후 지역민에게 보편적인 문화재향유 공간으로써 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발전과 문화 행위를 수용하는 문화, 교육,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공간으로, 그 지역의 문화생활 향상의 지표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요구나 참여도가 저조했던 1990년대까지는 무형문화재를 위한 건축공간으로써 전수교육관은 소규모의 전승활동이나 공연, 행사를 위한 공간시설로 소규모의 단일 기능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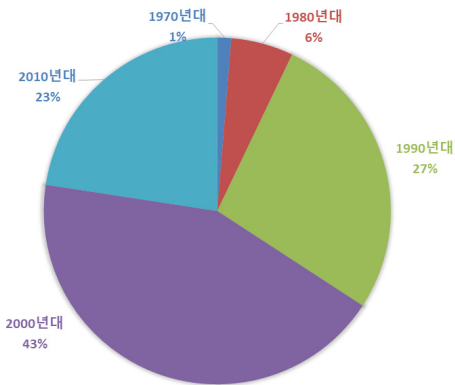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문화적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문화복지와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전수교육관 역시 대형화와 복합화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전수교육관은 문화시설이자 사회공공시설, 그리고 다양한 전통문화강좌를 통한 생활문화공간으로 그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수교육자의 확보와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무형문화재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부속시설 조성을 통한 복합화와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문화융합 공간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1].

### 3.2 전수교육관 현황

2016년 12월 30일 전국에 건립되어진 전수교육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Fig 1>과 같다[9,11,13,14,15].



[Fig. 1] Statistic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s nationwide



[Fig. 2] Distribu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s by the year of establishment

전체 전수교육관은 153개관으로, 지자체 중 대구와 울산, 세종은 전수교육관이 없으며, 광주가 1개소로 가장 적은 현황을 보이고 있고 경남과 전남 지역에 각각 22개관으로 가장 많은 전수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s by year of establishment

### 3.3 사례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전수교육관의 구분 중 예능과, 기능, 복합 기능적인 기능을 갖는 전수교육관 1개소씩 선정하되, 인구 50만명 이하 규모의 중소도시에 위치하는 전수교육관을 대상으로 하였다[9,11].

<Table 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s surveyed in this study

Teaching Hall Name	City	Open	Field
A. Miryang Baekjungnori	Miryang	1982	Performance
B. Ornamental Silver Knife	Jinju	2010	Technology
C. Jin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ll	Jindo	2016	Complex



[Fig. 4]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s surveyed in this study

### 3.3.1 건축적 입지특성

조사대상 전수교육관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우선 살펴보면, 각 전수교육관의 시설 공간구성에 있어서의 차별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A 전수교육관은 도심지 주변 산기슭에 L자형 배치로 2개동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도보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주변에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의 폭이 좁고 경사져서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다. 대지면적 2,304㎡, 연면적은 493.67㎡이며, 규모는 지하1층/지상2층 1개동과 지상1층 1개동이다. 지상1층(2개동) 주요 공간은 전수관(99㎡)과 관리동 지하에 교육장(125㎡)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종목은 밀양백중놀이와 밀양감내계줄당기기이다.

B 전수교육관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계단을 통해 진입한다. 전면 파사드 벽을 통해 진입하면 중앙정원 좌우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면적은 883㎡, 연면적 154.38㎡이며, 규모는 지상2층이다.

경사지인 지형적 환경을 이용한 볼륨의 점층적 상승은 단계적인 시각적 변화를 유도하며, 인접한 두석장전수관 시설과 경사지를 이용한 수직적 배치를 이루고 있다. 주요공간구성은 작업실(50㎡), 전시실(49㎡), 전수실(20㎡)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부 파사드 상부는 2개동을 연결하는 브릿지로 구성되어 있다. 종목은 전통장도제작과 기능을 전승하는 장도장이다.

C 전수교육관은 도심지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지의 중심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주변에 역사와 문화 관광지의 동선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대지면적은 6,993㎡, 연면적은 2,194㎡이며, 규모는 지하1층/지상2층이다. 중앙에 원형의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관리동과 교육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요공간시설은 연습실(10실, 660㎡), 강당(100석, 250㎡), 게스트룸(2실, 5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물의 형태는 반원아치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지역무형문화재 및 홍보관으로 강강술래를 형상화하여 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지붕부 램프에는 잔디 식재하였으며, 최대한의 조망을 확보하고, 중앙부 공연장 관람을 위해 집중되는 방사형 배치는 2개동의 매스를 이어주는 데크와 더불어 다양한 변화를 갖는 정면성을 확보함으로써 풍부한 개방감 제공하고 있었다. 주요 종목은 강강술래와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등 10

개의 종목이 위치하고 있다.

### 3.3.2 시설 및 서비스 특성

본 연구에서 건립현황과 공간구성에 대한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 전수교육관의 기능에 필요한 전승활동을 위한 교육공간, 연습실 등을 비롯해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유무를 파악하고, 지역민이나 방문객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편의시설 등 전수교육관의 시설 공간구성에 있어서의 차별적 요소를 살펴보면 <Table 2>, A 전수교육관의 경우 전수교육관외에 별도의 민속예술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수교육관 1층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층은 연습실로 구성되어 있다. 민속예술관 시설은 전통한옥구조로 장비 보관 등에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별도의 공연 전시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방문객 편의시설 및 홍보시설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진입에 있어서 비교적 어려운편으로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지대가 높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적여건은 전수교육관의 활용도가 낮은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B 전수교육관의 경우 교육관의 중심공간으로 작업실(교육장)과 사무실 외에 2층에 전시실이 설치되어 있다. 기능분야의 무형문화재 전승공간으로 별도의 공연장 또는 연습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의 독립적인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시장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상설전시 또는 전수교육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거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접근을 위한 편의 시설 및 가시성이 좋지 않아 폐쇄적인 전승활동 공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역민 또는 방문객의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공간 규모가 한정적이어서 공공성에 대한 취약함을 큰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옥외공간에 있어서는 이용객 활용도 면에서 양호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자연환경을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무형유산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C 전수교육관의 경우는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과 역사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나 도보로 접근성이 편리하다. 교육동과 관리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동에는 사무실과 실내공연장(강당) 및 창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관련 게스트룸이 마련되어 있어 전수교육여건이 양호하다. 교육동에는

각 분야별로 교육(연습)실과 홍보/전시 기능을 겸한 로비가 조성되어 있다. 교육동과 관리동 사이에 원형의 중정은 옥외 공연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주변에 진도향토문화회관과 진도아리랑시네마 등 문화공간이 집중되어 있어 주변시설과 연계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5,6].

(Table 2) Faciliti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eaching halls surveyed in this study

Facility classification		A	B	C
Performance	Indoor stage	-	-	●
	Outdoor stage	-	-	●
Exhibition	Exhibition hall	-	●	-
Education	Practice room	●	●	●
	Lecture room	-	-	-
	Guest room	-	-	●
Convenient	Conference rooms	-	-	-
	Artshop	-	-	-
	cafeteria	-	-	-

3.3.3 전수교육관의 특징적 요소와 활용실태

전수교육관에 대한 차별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조사대상인 전수교육관의 특성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전수교육관이 특정분야의 전승활동과 교육적인 면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민이나 방문객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과 공연 또는 시연 등 직접적인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시설은 무형문화재의 종목이 복잡되어 있는 C 전수교육관이며, 기능 중심의 전수교육시설인 A와 B 전수교육관은 지역민 또는 방문객에 대한 문화예술 공연/전시의 제공과 활용도 측면에서는 공간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전수교육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A 전수교육관은 별도의 한옥을 활용한 공연 및 체험공간과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거리조성 등을 통해 산책과 휴식의 지역 공공문화시설로 발전할 수 있으며, B 전수교육관은 접근의 편리성 등을 개선하고 시설 내 중정 공간과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전시실 등의 운영 프로그램 변화를 주어 무형문화재가 갖는 독특한 체험 공간 및 홍보 등에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소규모의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문화재전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 전수교육관의 경우 주변에 위치한 문화공간과의 연계한 활동이 용이하고, 역사문화관광을 위한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접근성이 편리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전수교육관의 고유한 기능인 전승활동과 교육 이외에 무형문화재가 갖는 문화적 특수성을 공연/홍보를 통해 지역민이나 방문객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입지적 특성, 그리고 공공성과 여가문화시설의 복합화 등을 문화의 다양성을 취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수교육관의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교육관의 각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전수교육관 사용자는 주로 전수교육자와 시민은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았으며, 공연장 기능 중심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공연장 또는 강당 설치 사례가 없었으며,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는 A와 B 전수교육관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의 공공성이 예술이나 복합기능의 교육관에 비해 낮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C 전수교육관은 활용도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지역별 전수교육관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비교 분석해 보면, A 전수교육관은 전승교육을 위한 연습실과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공간 등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외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접근성 등 입지적 특성이 취약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 전통한옥의 민속예술관 또한 활용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B 전수교육관은 전승교육을 위한 작업실과 부속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실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주변에 진주전통예술회관 과 두석장 두석장전수교육관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무형문화재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관광지로써 자연경관 등 지리적 여건이 양호하여 문화관광형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C 전수교육관은 도심 주변부의 도보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적 특성과 다양한 여가문화의 복합구성으로 타 전수교육관에 비해 상시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의 전반적인 활용도 평가는 기본시설인 전수교육시설이외에 공연/전시공간과 부대시설과 옥외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C전수교육관은 복합시설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비교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양

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술과 기능분야에 한정된 독립적인 전수교육관의 시설 활용도는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파악되었다[4,7].

### 3.3.4 교육 및 복합 문화융합 공간 개선

전수교육관을 보다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해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다 더 갖추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별 차이 없이 전수교육관에 대한 공간 개선 사항은 전수교육시설 활용을 위한 편의시설과 복합문화시설로서의 다양한 문화교육/강좌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이다. 그리고 전문도서관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사용자에 교육과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센터와 같은 공간의 마련이다. 점차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서 여타의 문화시설에 비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정보센터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로서 전수교육관이 단순히 교육과 시연, 연습실의 교육공간에서 공연/전시의, 홍보 등 다양한 문화/교육강좌 등으로 복합화 되고, 나아가 지역문화정보센터로서의 지역문화를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화융합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8].

## 4. 결론

무형문화재전수시설은 특성화 된 문화시설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문화재를 경험하고 직접 체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사와 문화 생활 향상의 지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전수교육관을 보다 지역 사회에서의 활성화 된 무형문화재전수시설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는 전수교육관에 대한 고찰, 지방 중소도시 전수교육관에 대한 방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도시 전수교육관에 대한 조사분석결과, C 전수교육관과 같은 도심지에 위치한 복합문화 공간 형은 공연과 전승교육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도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A, B 전수교육관은 접근성이나 편리성 보다는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립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건립년 수가 짧을수록 복합화의 경향성이 높아 전수교육관을 무형문화재와 전수자 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그 활용도를 확대 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전수교육관의 입지특성과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부 또는 공원/자연환경 등의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적응성은 양호한 곳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래 전수교육관의 기능에 다양한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복합공간으로 구성된 시설이 독립적인 전수교육관에 비해 공공성 개선에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전수교육관의 활용실태는 고유기능인 전승활동과 교육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연/전시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수교육관의 긍정적인 요소는 역시 일반적인 공연관람시설에 비해 특정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우선하고, 다음으로 다양한 콘텐츠개발과 지역민 또는 방문객들의 문화여가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사용자들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우선 전수교육관의 교육과 전승활동에 비중을 두면서 부가적으로 사용자들을 위한 시설 복합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수교육관이 보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설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과 실/내 휴게공간에 대한 개선과 다양한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강좌를 위한 시설에 개선 및 정보 활용 공간 개선 등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0년대 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과 국민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립된 전수교육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수교육관은 본연의 전승활동과 전수교육기능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의 복합화를 위해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입지특성으로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방안과 일상 속에서 지역문화공간으로 접근 가능한 개방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대한 부분적인 실태조사에 국한되어, 향후 보다 실제적인 활성화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와 함께 사용자 관점의 세부적인 요구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결과 무형문화재관련 정책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비해 전수교육관의 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전수교육관에 공간 활용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시대적·사회적인 변화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새롭게 조성되는 전수교육관이 복합 문화융합 공간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활용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 중심에 보다 활성화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길 기대한다[8,10].

REFERENCES

[1] J. P. Lee,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Achievement of ICH Safeguarding System, Cultural properties, Vol. 44 No. 4, pp. 18-41, 2011.

[2] J. H. Lim, "A New Understanding and Creative Handing Down of a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he Korean Folklore, pp. 237-285, 2007.

[3] S. J. Jung, "Constitu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stitution and its historicity" The Korean Folklore, pp. 475-508, 2004.

[4] S. M. Yoon, Study on Space Design of the Cultural & Arts Center for the Regional Culture Vitaliza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 thesis, 2015.

[5] S. H. Han, (A) Foundational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Guidekines for Performing Arts Centers in Korea. Hongik University, M.A. thesis, 2007.

[6] J. M. Go,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model for performing arts centers. Hongik University, M.A. thesis, 2008.

[7] J. H. Park,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Activities in the Complex Cultural Space of National and Public Performance Facilities:

Based on U.E.C (Urban Entertainment Center) Success Stories" Korea Association Business Education, pp. 349-374, 2017.

[8] E. J. Kim, E. K. Park, "A Study on the Program of Multi Purpose Cultural Facilities as Community Space",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4 No. 1, pp. 79-82, 2004.

[9] <http://www.nihc.go.kr>

[10] <http://ilc.incheon.go.kr>

[11] [www.cha.go.kr](http://www.cha.go.kr)

[12] [www.iha.go.kr](http://www.iha.go.kr)

[13] [www.djichc.or.kr](http://www.djichc.or.kr)

[14] [www.kpicaa.co.kr/](http://www.kpicaa.co.kr/)

[15] [www.chf.or.kr/](http://www.chf.or.kr/)

저자소개

이 상 희(Sang-Hee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 2002년 2월 : 목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 2013년 2월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 2014년 4월 ~ 현재 : 우리문화유산연구원 책임 연구원
- 2016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겸임 교수

<관심분야> : 건축사, 문화유산, 도시재생

전 칠 수(Chil-Soo Jeon)

[정회원]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 2015년 12월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 2014년 7월 ~ 2016년 3월 : 문화재청 전통문화대학교

- 2016년 3월 ~ 현재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심분야> : 문화, 문화유산, 문화재행정